보건연구정보센터
http://www.richis.org

여성의 지위에 따른 看護師의 위상 변화 Ⅱ *
-중세 이후부터 근대 후기까지-

최 순 옥**

Ⅰ. 머 리 말

인류의 생존과 함께 존재해 온 간호는 예로부터 여성의 고유한 업무로 간주되었으며, 나이팅게일도 "모든 여성은 그들의 생애에 한 두 번은 어린이든 환자이든 다른 사람의 건강을 돌보게 된다. 즉, 모든 여성은 간호사다."라고 하였다(F. 나이팅게일, 1997).

근대 중기이후 간호직이 분리된 직업으로 대두된 후에도 간호직은 역시 압도적으로 여성의 전문직이며, 이러한 특성은 간호직과 의료직을 구분 짓는 가장 현저한 특징이고 나아가서는 간호직의 전문직으로서의 지위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르네이 C. 팍스, 1993).

역사적으로 간호의 위상은 여성의 위치, 여성운동, 여성문화 등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그래서 로빈슨은 "간호의 역사는 시대를 통해서 내려 온 여성의 위치를 꼭 그대로 반영한 거울이다"라고 하였으며, 마틴은 간호사들의 전문직으로의 위상 정립을 위한 노력을 간호의 영향력과 통제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성차별을 둘러 싼 전쟁이라고 하였다(포스터와 앤더슨, 1994).

그러나 대부분의 대중들은 아니 간호사들조차도 남성중심의 시각으로 묘사된 잘못된 보건의료의 신화와 간호역사 및 여성의 역사에 대한 인지의 부족으로 보건의료체계에서의 의료와 남성의 독점적 지배를 숙명으로 받아드리고, 여성인 간호사는 의사에 의해 혹은 남성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이중적인 종속구조에 의해 자존감이 저하되어 간호의 위상 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한혜라와 박영숙, 1994).

과연, 오늘날 간호의 위상이 대부분의 보건 의료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로부터 점진적이고도 축적적으로 이루어져 온 여성 지위 향상의 결과인가? 그리고 또한 여성의 일로서 시작된 간호의 역사성 때문에 간호가 의학에 독점적 지배권을 넘겨주고 의사의 보조자 역할 혹은 주변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것일까?

Brown과 Ogren은 간호역사의 바른 이해는 현재의 간호전문직이 당면하고 있는 제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데 긴요하며, 의료체계 내에서 간호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자리 메김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김남선, 1997).

그러나, 그동안 전통적인 여성학 연구에서 여성의 위치를 그대로 반영한 간호의 역사를 통한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무시되어 왔으며 또한 여성운동의 선구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거의 인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1세기 간호의 발전을 눈앞에 두고 미래가 요구하는 전문직으로의 간호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우선 무엇보다도 간호사 자신들의 문제의식 함양과 새로

* 이 연구는 부산가톨릭대학 간호학과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부산가톨릭대학 간호학과

운 실재관 즉, 새로운 여성관 확립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금, 간호역사의 여성학적 접근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에 저자는 간호의 역사를 그 시대의 여성의 지위의 변화에 따른 역사의 시각으로 다시 숙고해 봄으로써, 간호사들이 의료전문직 간호사로뿐 아니라 한 여성 전문직업인으로서 여성에 대한 정체성에 관심을 갖게 하고자 다음의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답을 찾고자 한다.

첫째, 그 시대에 여성의 지위와 간호에 영향을 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무엇인가?

둘째, 그 시대에 여성의 지위는 어떠했으며 여성의 지위는 간호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셋째, 간호직을 전문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나이팅게일의 여성관과 간호관은 어떠했는가?

넷째, 앞으로 여성의 지위와 또 간호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

본고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편의상, 통상적인 역사의 구분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호역사의 중요한 연대 별로 시기를 구분하여 논문을 1편과 2편으로 나누고, 이미 발표된 바 있는 논문 1편에서는 간호가 출현된 선사시대부터 간호의 절정기라 할 수 있는 중세까지의 간호사의 위상을, 그리고 본 논문 2편에서는 절정을 이루었던 중세의 간호가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어떻게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이후 근대까지의 간호사의 위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Ⅱ. 선사시대와 중세 간호

선사시대는 여성이 종교적인 이미지를 장악하고 존중받았던 남녀가 평등한 인간적인 사회였다(조성오, 1994). 이 시대에 여성은 사회화의 주인으로서 배움의 중심이었고, 또한 식물채집 기술의 교사였으며, 어린아이들의 생존을 지키는 보호자로 모성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유대감의 근원이었다(이화여자대학교, 1980 ; 섀리 엘 서러, 1996).

이러한 사회에서 질병 치료의 몫은 여성에게 있었다. 그 시대의 의료와 간호는 구분이 없었으며 인류의 출현과 더불어 자기 자신의 간호에서 가족 중심의 간호, 더 나아가 가족뿐 아니라 공동체 소속의 타인으로 대상자가 확대 되었으며 간호사는 영적 지도자, 인도자 혹은 상담자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존경의 대상이었다(섀리 엘 서러, 1996 ; 이영복, 1995).

고대문명시대는 역사적인 사건들과 사회적 동력들이 서로 맞부딪치면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변화무쌍한 권력이동이 일어났고, 가족의 동력과 정서적인 결합이 영원히 번회되게 되었다(앨빈 도플러, 1986 ; 섀리 엘 서러, 1996).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사적소유의 관념이 발달하였는데 사적소유는 착취와 피착취, 지배와 피지배층 등 인간과 인간사이의 불평등 사회현상을 발생시켰다(조성오, 1994). 초기 농업의 주도자였던 여성들 대신 남성들이 농업을 주도하게 되어 남성들이 경제적 주도권과 가장의 권위를 확립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이른바 '가부장제'라는 수난의 여성 역사가 시작되었다(게어로그 지그문트, 1988). 가부장제가 지배권을 획득하는 2,500여 년의 과도기동안 여성은 출산능력의 기준 즉, 오로지 자신의 모성에 의해서만 가치를 평가받게 되었다.

여성으로부터 남성으로의 권력이동은 역시 여신들의 지위 하락에도 영향을 미쳐 뱀으로 상징되는 건강의 여신 히기에이아는 아스크레피우스의 딸이 되어 버리고, 아스크레피우스가 지배적 치료신이 되어 그리스 전역의 사원에서 예배되었다(카프라, 1993).

이상에서와 같이 고대 문명시대는 자연과학과 히포크라테스의 출현으로 새로운 질병관과 치료술은 발달하였지만, 여성들의 특권이었던 질병의 관리가 조직적이고 전통적인 의학의 출현에 의해 부계 사회적 형태로 고착되기 시작되어 점차 남성 지배적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힘없고 약한 자의 생존을 돌보는 강한 모성에서 출발한 간호, 즉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보는 간호의 본질은 사회 환경상 외부로 대두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성의 지위와 간호의 역사에 획기적인 변혁을 초래했다. 예수는 하락된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하였으며, 아픈 자는 예수의 모상이라는 간호 대상자의 새로운 개념을 수립하게 해주었다(이정지, 1988).

그후 가난 한자와 병든 자에 대한 자선과 봉사활동은 곧 하느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사명으로 여겨져 간호의 절정기라 할 수 있는 중세의 간호를 이끌게 되며, 중세의 간호는 교회의 조직적인 의료활동에 편승하여 간호의 본질을 한껏 꽃피웠던 이른바 임상간호 -bedside care- 의 절정기를 이루었던 것이다.

Ⅲ. 근대 간호 ; 페미니즘의 등장과 간호

1. 근대 태동기와 간호 - 마녀사냥과 간호

「르네상스가 궁폭으로 멀어나갈 때, 셱스피어는 희곡을 쓰고,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렸으며, 마녀들은 화형 당했다. 생식에 적합한 여성 즉 "훌륭한 어머니"만이 그 사회의 여성 혐오증에서 면제될 수 있었다. 마녀사냥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암흑기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합리주의와 과학혁명의 시대인 근대 초기에 일어났던 것이다(섀리 앨 서러, 1996).」

중세 유럽 사회는 십자군 원정을 계기로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14세기 이후 이탈리아의 상업도시를 중심으로 근대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인문주의를 근간으로 한 르네상스 운동은 16세기에 이르러 서유럽 각지로 확대되어 종교개혁의 회오리바람을 일으켰다(박성수와 김영하, 1984). 종교개혁은 중세 유럽인의 내면적인 발달을 자극하여 정치, 사상에 큰 변화를 일으켜, 절대왕정의 성립을 촉진하였으며, 신 항로의 개척에 따른 지리상의 신대륙 발견은 외면적인 발달을 자극, 봉건제도의 몰락과 신흥 자산 계급을 가져오는 경제적 구조변화를 가져왔다(문화사교재편집회, 1977).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중세의 낡은 질서를 맹렬히 파괴하여 15세기말부터 17세기초까지 대략 근 200년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근대사회로의 이행이 진행되었다(세계역사연구회, 1995).

이러한 세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드려졌던 상식적인 견해는 서서히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위를 중시해왔던 인류는 인간의 새로운 세계를 밝혀내는 "과학"이라는 새로운 권위를 창조하였다(제임스 레드필드, 1995).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문화로의 부활운동인 르네상스, 눈부신 그림, 과학에서의 훌륭한 업적, '인간의 자유에 대한 존엄의 재발견' 등을 떠올릴 수 있는 르네상스에 대한 반짝거리는 이미지가 여성의 지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고대 그리스를 지나치게 이상화했던 이 시대에는 역설적이게도 아테네의 가장 나쁜 점을 특징으로 삼았다. 그 나쁜 특징이란 다름 아닌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소멸인 것이다. 남성과 동등한 완전한 인간의 존재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 권리와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교회 영역에서 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중세의 여성들은, 이제 남성으로 조직된 관료주의적인 중앙정부와 교회의 여성배제 정책에 의해 급격히 주변부로 밀려났으며 다시 가정으로 '범주화'되었다(섀리 앨 서러, 1996).

종교개혁 또한 기독교 신앙으로 향상되었던 여성의 지위를 하락시키는데 일목 하였다. 종교개혁의 아버지 '마틴 루터' 자신이 전직 간호사와 결혼하므로서 결혼을 고귀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후원하였지만 여성들에게 다른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루터와 프로테스탄트가 찬양한 가족은 동일한 협력관계가 아니라 그저 남성 소유권 관계 즉 가부장제의 전형이었다. '아버지의 역할'은 집, 마을, 교회 그리고 국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배로 집대성되고 추정되었다. "그대의 아버지를 존경하라"는 계명을 십계명의 원본에는 명백히 어머니 역시 존경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으며, 왕과 아버지들은 그들의 최초의 아버지인 아담과 창조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끊임없는 지배사슬의 일부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화적이고 정신적인 모성의 상징이었던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도 강등되었다. 종교개혁은 성모 마리아를 해체하여 성모마리아의 모성을 그녀의 매력과 힘에서 분리했다. 한때 천상의 어머니였던 성모 마리아는 특유의 초연함과 위엄을 상실하고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위해서 일하는 요셉에게 어울리는 짝으로서의 순종적이고 조용한 배우자로 완벽한 아내가 되었다. 모성은 이제 양육과 자기 희생이라는 형태 안에서만 받아드려지게 되었으며, 관능과 힘을 지닌 어머니는 "반(反) 어머니"의 표본으로 마녀로 치부되었다(섀리 앨 서러, 1996).

이렇듯 종교개혁은 모든 전진을 위해서 여성을 전제주의적인 가부장제의 틀 속으로 가두고 말았던 것이다(J. Theodora, 1992).

여성의 역할이 여성 생식기적인 일인 임신이나 출산으로만 고착되어졌던 르네상스의 시대적 배경이 간호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 시대에 만연된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배제는 근대 의료 형성사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한 역사라 할 수 있다(Witz, 1986). 자율적이고 공적인 영역 특히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여성의 고유한 영역이었던 생명을 다루는 일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치열한 '성전쟁' 이른바 15세기와 17세기에 걸쳐 자행된, 교회에 의해 시작되었고 남성의사들에 의해 주도된 마녀학살이 바로 그것이다(영국개방대학, 1991). 이의 토대는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과학적 사고의 업적이었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적인" 견해 즉, 아버지들은 수정과정에서 적극적인 요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머니들보다 우월하다는 사고의 부활과 자연시린 '속박 속에 묶어야 하며' 과학

자의 목적은 '자연의 비밀을 고문해 내는' 것이라는 17세기의 자연관은(보통 자연은 여성으로 비유되었다) 마녀재판을 통한 여성고문의 현상을 강력히 지지해 주었다(카프라, 1993).

남성의사들은 "과학적인 권위"라는 토대 아래 그동안 여성들에 의해 주도된 건강의 주역으로서의 일체의 활동을 비공식적이고 미신적이며 마녀적인 일로 간주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마녀들이란 남성권위에 잘 복종하지 않는 중년 이상의 과부, 독신녀들이었고 병고치는 사람, 산파들로 명망이 높은 여성들로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전형적인 여성상에서 이탈된 자율성을 지닌 여성들이었다. 특히 산파들은 불임과 낙태를 초래한다고 고소 당했기 때문에 마녀사냥꾼의 표적이 되었다. 이 시기부터 남자 의사들이 여성의 분만일을 담당하기 시작하였으며, 남성들이 출산이라는 여성의 필수적인 체험을 통제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벌인 싸움에 관한 이야기는 잘 기록이 되어 있다(샤리 앨 서러, 1996).

이렇듯, 마녀사냥은 그 당시까지 인간애 속에서 미을의 여성 치료사에 의해 운영되던 꽤 정교한 의료체계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수도사와 수녀에 의해 제공되던 보건의료 및 질적인 간호를 남성의사들이 지배하게 되는 권력이동의 교두보가 된 것이다.

관료주의적인 정부와 상업적인 자본주의가 여성역할을 좀먹던 르네상스시대에 부모들은 원하지 않는 아동들은 버렸으며, 버려진 아동들은 인도주의 적인 양육원에서 떠 지어 죽어 갔다. 이러한 차별유기는 여성의 역할의 제한과 더불어 다음 세기까지 계속되면서 더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또한 근대 초기에는 아이를 유모에게 맡기는 관습이 중간계층까지 확산되었다. 유모의 직업은 실제로 17세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18세기에 절정을 이루었다(샤리 앨 서러, 1996).

2. 근대 중기와 간호 : 직업여성과 간호의 암흑기

「가부장제 역사의 시발점인 제1의 물결인 농업혁명은 수천 년에 걸쳐 천천히 전개되었지만 산업혁명의 출현에 따른 제2의 물결의 변혁은 불과 30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산업혁명은 전세계를 뒤흔드는 충격파를 던지면서 옛사회들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냈다. 요컨대, 산업주의는 하나였던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리시켰으며, 이러한 경제의 분열은 노동형태간의 갈등으로 비롯되는 남녀의 분열을 심화시켰다(앨빈 토플러, 1986).」

200년동안의 근대로의 이행기인 과도기를 거치면서 중세의 세계를 질서화하고 있던 숙명적인 세계관이 무너지고 마침내 하나의 새로운 종합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전 우주는 하나의 단순불변의 수학적 법칙들에 의해 지배된다고 하는 계몽주의적 세계관의 기본 패러다임이 수립된 것이다(조세핀 도너번, 1993). 이러한 근대정신과 지리상의 신발견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시민계급과 절대주의 국가의 중상주의는 자본축적을 가져왔고, 그것이 자본주의 형성의 도대가 되었다. 이 자본주의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요구함에 이르렀으니 프랑스혁명으로 마무리된 시민혁명이 그것이다.

또한 일찍이 정치적 안정을 이룬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을 계기로 기계를 사용한 공장제 공업의 성립과 산업자본의 확립을 가져온 경제혁명으로 자본재 생산양식에 기초된 근대사회를 창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문화사교재편집회, 1977).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계몽사상의 가치체계와 산업혁명의 기술로 인한 초기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주류를 이루는 근대 중기의 사회상이 여성의 지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17세기는 지적, 도덕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견해를 이어왔다. 종교적으로 묘사한 것과 같이 여자는 도덕적으로 사악하다는 가정에서 유래된 근대초기의 여성의 열등성은 자본주의에 의해 여성에 대한 견해가 재정의 되었다(J.R. 아이젠시타인, 1988).

자본주의의 새로운 관계는 가정과 시장, 그리고 국가와 가족이라는 구분을 통해서 남성의 권력을 재구성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계몽주의로 하여금 이성을 공적인 영역과 동일시하고, 비이성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개인적인 영역 및 여성의 영역과 동일시하도록 부추기게 되었다(E. Zaretsky, 1976). 18세기 중·후반 산업혁명으로 인한 역사적 환경의 현저한 변화는 가부장제인 가내 생산양식의 해체를 초래하였으며,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변화의 원인은 예전에 주로 가족을 생산단위로 이루어졌던 농업 생산이 공장을 중심으로 한 기계제 생산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공장으로의 생산지의 대체는 직장과 가정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여성은 가정 내의 재생산을 담당하고 남성은 가정 밖-공장-에서 생산노동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성별분업은 점차 남자는

인, 어지는 가정이라는 이분적인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강화키므로써, 시장세계라는 남성의 영역과 가정세계라는 기혼여성의 영역의 독특한 특성으로 확립되었다(J.R. 아이젠시타인, 1988 ; 윤근섭 등, 1995). 그러면서도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더많은 노동력의 충원이 필요해지면서 여성이 사회적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회 문화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여성문제의 시초가 되었다(윤근섭 등, 1995).

그러나 이런 질서가 모두 여성에게 열악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 사회질서는 여성들에게 중요한 역할과 다양한 보호수단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장 다수의 여성들에게 열려진 '어머니라는 직업'을 안정시켰던 것이다(Bernard, 1972). 따라서 번성하는 자본가의 아내는 남편의 풍요로움의 척도로서 가정에 머무르면서 가능한 한 게으르고 사치스럽게 보여야 할 의무를 떠맡게 되었으며, 부유층이 아닌 숙련된 직공의 아내는 경제적 독립을 잃고 남편에게 무보수로 봉사해 주는 가정의 하녀가 되었다. 그리고 임금노동자의 아내들은 그 당시에 노동조건이 열악한 공장의 임노동자가 되어 낮은 단계의 기본적 권리, 착취당하는 직업, 임금을 받는 노동과 가사노동이라는 이중의 짐 그리고 계속 그들을 압박하는 양육책임을 떠 맡게 되었다. 당연히 그런 가치체계는 노동계급 여성이 전업 주부라는 여성의 이상을 갈망하게끔 고무되었다(Miles, 1985).

이런 경멸성에 더하여, 직업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나타났다. 즉, 직업은 보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되었다. 따라서 여성들은 가사에 종사했지만, 대가없이 일을 하였으며, 대가 없는 노동은 실제 직업이 아니었다. 이러한 성에 근거를 둔 특징은 여성노동력의 착취를 가중시켰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일을 비기시적으로 가치 절하시켰다(Devault, 1990).

이상과 같이 산업 자본주의에서의 가정과 직장의 엄격한 분리는 국가 구성원에 의하여 오랫동안 이념적 정당성을 가져왔던 공사 영역간의 구별을 변형시키고 보강시켰으며, 가족역학 질서는 경제적 변화에 따라 봉건주의적 가부장제에서 전제주의적 가부장제를 거쳐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가정에서 가족을 보살피는 전업주부가 찬양되는 한편 생계를 위해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근로 여성이 공존하는 근대 중기의 시대적 배경이 간호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의료행위가 점점 세속화함에 따라 종교기관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던 병원이나 구빈원들은 세력있는 상인들이 점점 장악하고 관리하게 되었다. 몇몇 병원은 많은 금액을 기부 받았던 반면에 나머지 병원들은 공공의 자선행위에 주로 의존을 하고 있어서 이런 곳의 운영자들은 수입을 올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한 방법에는 병원을 학교로 개조하는 것, 노인환자들 거절하는 것, 식권을 발행하는 것,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도사와 수녀를 학대하는 것이 있었다(영국개방대학, 1991). 또한 산업주의의 여파로 금전, 재화, 물건에 대한 강박관념은 인간의 행위를 거래행위로 간주하게 되어 신에 대한 충성심이나 인간애 속에서 시술되던 간호나 의료행위는 금전적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시술되었다(앨빈 토플러, 1986).

한편, 면허제의 도입과 더불어 의사의 활동 한계를 규제하려는 시도가 더욱 조직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여성들은 대학교육으로부터 배제되어 결국 정규의사가 되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비공식적인 부분에서 나름대로 전문화된 치료행위를 하였는데, 19세기 전반까지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의사와 나머지 의료인 사이에 치료능력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며 일반인의 신뢰도 비슷했다고 한다. 또한 그 밖의 여성들은 병원이나 고아원, 구빈원 혹은 부유한 가정에서 아기를 돌보는 일로 고용이 되었는데(영국개방대학, 1991), 바로 이것이 간호가 분리된 직업으로 출발하게 된 시발점이 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총체적으로 접근되왔던 인간의 건강관리 행위가 의료와 간호로 분리되어, 일반인의 인식에 의료는 남성의 직업으로, 간호는 여성의 고유한 직업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직업간호는 최고의 지성을 갖춘 여성이 간호를 하던 수도원 간호에서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산업전선에 뛰어든 준비가 안된 낮은 사회계층의 여성들에 의한 간호로 대체되면서 약 200년동안의 간호의 암흑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 시기의 병원 간호사는 세탁하고 청소하는 가정부였다. 그들은 낮은 사회계층 출신이었고 종종 읽거나 쓸 수 없었고 술고래로 알려졌다(Brooks, 1983).

더욱이 18세기 후반에는 국민의 건강 및 위생상태의 유지를 책임지는 의사경찰(medical police)이라는 의학의 정치적 의식화(이종찬, 1992)로 의사들이 그 시대의 건강관리 주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의사의 위상이 급부상하여 간호의 위상과의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 시기는 지배의 시기나 여성의 절대적 종속의 시기만은 아니었다. 이른바 이 시기는 또한 페미니즘의 탄생을 목도한 세기인 것이다. 계몽주의 사상은 여성

도 하나의 개인으로서 합리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여성들에게 자각시켜 주었고 산업혁명은 여성들을 아버지와 남편에게 속박시켰던 경제적, 상징적 종속의 끈을 제거해주기도 하였다(조르주 뒤비와 미셸 페로, 1994). 따라서 근대 중기는 여성의 삶과 직업간호의 위상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 이른바 선구자적인 페미니스트들에 의한 사회적 실현이 시작된 다음의 세기를 이끌게 된다.

3. 근대 후기와 간호 : 페미니즘의 사회적 부상과 나이팅게일의 출현

「페미니즘이란 이 상징적인 용어는 성이 정치무대에 하나의 집단적인 세력으로 등장했을 뿐 아니라 임노동, 개인의 시민적 권리, 여성의 피교육권과 같은 사회구조에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가리키기도 한다(조르주 뒤비와 미셸 페로, 1994).」

일찍이 산업혁명에 의해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영국은 빅토리아 시대에 이르러 세계경제의 주도국이 되었다. 산업의 발전으로 자본을 축적한 자본가가 출현하여 생산을 지배하였으며, 자본가는 대공장에서 대량생산된 싼값의 생산품을 팔아 이윤을 얻게 되어 대공장을 가진 자본가가 사회경제의 대세를 좌우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 제도가 확립되었다(문화사교재편집회, 1977).

이와같은 경제적 변동의 결과, 경제는 시장화되었으며 상업적 가치가 중심문제로 대두되었고 경제성장이 각 나라의 1차적 목표가 되었다(앨빈 토플러, 1986).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은, 산업혁명 전에는 같은 계열에 서서 전근대적 요소를 타도했던 자본가와 노동자를 빈부의 차이로 계층 분화 시켰으며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인해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치닫게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 속의 삶을 '적자생존'의 생존경쟁으로 보는 다윈의 견해(카프라, 1993)와 자본가의 이윤추구를 정당하한 아담 스미스의 경제성 논리로 더욱 정당화되었다.

한편 18세기에 그 기초가 선 자연과학은 19세기에 들어와 산업혁명 이후 더욱 성장한 자본주의의 요구에 의하여 획기적인 발전을 하였다.

자본주의 발전과 자유주의 신장 그리고 기계론적 우주관에 입각한 자연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토대로 하는 근대사회 후기, 이러한 사회상이 여성의 지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여성도 하나의 개인으로서 합리적인 존재라는 여성해방론적 주장의 시발점이 된 자유주의 견해는 그 당시 풍미했던 여성에 대한 종교적인 관점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면서, 여성의 삶이 일변한,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여성의 삶에 대한 전망이 일변한 역사적 순간인 19세기에 다다르게 된다. 근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이념들 중의 하나인 천부인권이 오직 이성적인 영역 즉, 남성만이 대상이었던 불충분한 패러다임과 여성의 예속을 신성화시킨 기념비라 할 수 있는「민법전」이 서서히 19세기 내내 수정되고 개정되기 시작하였다(조세핀 도너번, 1993 ; 조르주 뒤비, 미셸 페로, 1994).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사회는 후기에 이르자 당시 서구지역을 휩쓸고 있던 혁명적 흐름의 열기에 반응하고 있었는데, 이른바 계몽주의 시대 혹은 이성의 시대에 개발된 이론들이 실현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세력의 부흥과 새로운 지식의 전개로 사회전반에 걸쳐 일대 개혁들이 일어났으니, 선거법의 개정과 노예폐지법에 의한 노예해방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강한 보수세력들은 여자들을 위하기는 하였지만 여성을 나약한 자로 대해서 사회활동의 새 기회를 주지 않았다. 혁명 시절에 여성들의 주도적인 역할로 다소 약해진 가부장적 태도는 재충전되었다. 이번에는 남성의 우월성이 성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정설인 과학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았다. 진화에 관한 다윈의 급진적인 새 이론은 여성을 위한 이론이 아니었다. 다윈은 여성은 생물학적으로도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여성들의 삶은 가정생활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다시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영국의 여성과 딸, 어머니들은 공장, 상업 혹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성의 아내로 자유주의적 교육의 혜택을 받고 한편으로는 권리가 없는 그런 여성들이었다(글레논, 1990).

그러나, 공무에서의 배제와 엄격한 규범으로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등의 여러 제한에도 불구하고 여성적인 것의 영원한 본질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시 사고하려는 아주 대담한 전망들이 새롭게 펼쳐졌다(한국여성연구소, 1989).

이러한 배경은 서구 전역에 걸쳐 집단적인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을 통해 양성의 평등을 성취하려는 페미니즘을 낳게 하였는데, 18세기말 프랑스혁명 초기에, 「여성의 제 권리」를 주장했던 '올림프 드 구즈'는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로부터 1세기 후 영국의 '메리 울스

턴크래프트'는 「여권옹호론」이라는 페미니즘이론에 관한 사상 최초의 주요한 업적을 출판하게 된다. 이와같은 초기 페미니스트들의 투쟁이 밑거름이 되어 1830년 이후에는 영국을 중심으로 몇몇 선구자적인 페미니스트들에 의한 사회적 실현을 통한 여성운동이 전면에 부상하게 된다(조르주 뒤비, 미셸 페로, 1994).

프랑스혁명과 미국에서의 혁명들은 모두 여성들이 자유롭게 집단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터놓았으며, 산업혁명은 여성들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주어 경제적 자립의 계기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19세기 여성운동의 주요쟁점은 참정권과 여성교육에 관한 것이었다 그 시대의 페미니스트들은 특히 여성교육에 있어, 여성들이 가사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공적인 삶 즉, 도덕적, 경제적 독립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의약, 학문, 사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직업들이 허락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 성직자로부터가 아니라 신성한 지혜와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부산대학교여성연구소, 1992 ; 남인숙, 1996).

온화하고 상냥한 가정적인 여성이 상류사회의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추앙받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노동자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여성의 경제적 평등과 정의에 관심을 가진 몇몇 선구자적인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여성의 삶과 사회적 활동 및 여성노동 등의 여성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근대 후기의 사회상이 간호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나이팅게일(Florence Nightingale, 1820-1910)은 이러한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사회번영과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여성해방에 대한 요구가 맞물린 영국사회를 배경으로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갖춘 명문집안에서 출생하였다. 나이팅게일이 철이 들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1845, 6년도 그 시절 영국은 산업화가 만들어낸 거대한 부(富)에 대비하여 수많은 민중의 처참한 생활상과 환경의 악화 그리고 구빈원의 무력한 활동 등 이런 환경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한 공중보건 조치가 실패하여 민중들의 건강상태가 악화일로에 있던 시절이었다(윌니엄 H. 맥닐, 1992). 한편 병원의 간호직의 상태도 전혀 나을 것이 없어 간호의 암흑기의 연장이었던 19세기 중엽 그 시대 영국에서 병자를 간호하는 여성은, 여타의 착실하고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여성, 나이 많은 노파나 심지어 알코올 중독자들이었다(일월서각편집부, 1985 ; 르네이 C. 팍스, 1993). 그 당시 상류사회의 이상적인 여성상이던 온화하고 상냥한 가정적인 여성과는 달리 무엇인가 생애를 바칠 수 있는 의미있는 일에의 끊임없는 추구를 하던 나이팅게일이 간호를 통해 사회위생, 도덕 개선 사업을 정열의 대상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전혀 불가사이한 일은 아니었다. 나이팅게일은 일관된 불굴의 정신으로 무장된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종교로 무장된 임격한 노틱주의자였다. 그 시절 여성은 '남편을 붙잡도록 만 사회화되는 상류사회 여성의 분위기'와 19세기 여권운동의 또 다른 하나의 중심문제가 되었던 결혼한 여성들의 시민으로서의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유부녀의 신분을 자각한 나이팅게일은 결혼의 기만과 인습의 무의미함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큰 일의 성취를 위해 과감히 독신을 선택했다.

나이팅게일은 남성들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에서 타인의 건강한 삶에 책임을 지는 것은 여성들이고, 모든 여성은 곧 간호사라고 주장하면서 의학과는 분명히 다른 건강을 보살피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F. 나이팅게일, 1997). 그녀가 간호에 미친 가장 큰 업적은 전문적인 간호교육을 시도하여 간호업무의 전문직 개념을 형성하여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데 있어서 전문화를 시도한 점이다(이영복, 1995). 간호교육의 출현은 많은 여성을 대학가로 움직이게 하였으며, 또한 모동여성들의 경세적 참여, 진취적인 대중의식과 맥락을 같이 하여 여성의 전문직 직업관을 고취시켰다. 이로 인해 간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높아지고 간호사를 지원하는 여성들의 자격과 질이 향상되었다. 또한 간호사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성의 참여 및 활동을 허용하지 않았던 모든 정치관계 분야와 관료사회 내에서, 그녀는 불요불굴, 기지, 대중에게 받고 있는 세론의 지지를 전면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주위에 헌신적인 사람들의 작은 단체를 만들어 그 구성원들의 능력을 십분 활용하는 뛰어난 지휘력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부패의 온상이었던 영국 육군병원 전체조직을 개선하는데 까지 힘을 쏟았다(일월서각편집부, 1985). 그야말로 나이팅게일은 전통적인 간호사의 이미지 다시 만해 '백의의 천사'라는 이미지를 창출하였는데(임미림, 1995), 이 천사라는 이미지 속에는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온화하고 상냥하며 인정스러운 특성만이 내 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격하고 빈틈없는 규율과 사소한 일에도 소홀하지 않는 세밀한 주의, 날카로운 통찰력, 부단한 노력, 불굴의 의지와 확고한 성품, 타오르는 정열 그리고 그녀의 의견을 들으면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독특한 권위 등의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특성이 고요한 표정 속에

숨어있는 것이다.

그 동안 나이팅게일은 그 시대 여성주의의 중요 이슈였던 여성의 참정권 획득에 대한 명백한 지지의 부족으로 일부에서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지지하였다. 단, 참정권 획득에 우선권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빅토리아시대 여성들의 가장 취약점이었던 미비한 법적인 지위와 교육수준 그리고 결여된 독립된 경제권의 획득에 초점을 둠으로써, 여성을 性의 관점에서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복합적인 신념을 펼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그녀는 비종교적인 전문 직업간호사를 교육하여 배출하고, 대영 제국의 공중보건제도를 개혁을 하므로 써 그녀의 이상을 실현한 선구자적인 페미니스였던 것이다(Louise C. Selanders, 1998).

또 한편 나이팅게일의 제자인 '펜위크'는 간호사의 전문직으로의 성장과 진취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조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1887년「영국간호협회」를 결성하였으며, 나아가 세계적인 조직적 활동을 위해「국제간호협회」를 조직(이영복, 1995)하여 간호의 연대를 통해 조직적인 장치를 창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나이팅게일과 그의 후예들은 간호개혁에 일생을 투신하므로써 그 시대 페미니스트들이 추구했던 이상을 실현하였으며, 그 결과 간호는 암흑기의 막을 내리고 현대간호의 모체가 되게 한 일대 변혁의 획을 긋게 되었던 것이다.

Ⅳ. 맺 음 말

21세기의 간호발전을 눈앞에 두고 미래의 건강관리체계에서 주역으로서의 자리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지금, 간호의 역사적 위상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긴요한 작업일 것이다.

예로부터, 간호는 여성의 고유한 업무였고 또 압도적인 여성의 전문직이기 때문에, 간호의 위상은 그 시대의 여성의 지위를 그대로 반영한 거울이었다. 그러나 남성중심의 시각으로 묘사된 보건의료역사속에서 간호사는 항상 의사의 보조자 혹은 주변적인 존재로 그려져 왔다. 따라서 여성인 간호사는 의사에 의해 혹은 남성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여겨 왔다.

이에, 저자는 간호의 역사를 여성의 지위의 변화에 따른 역사의 시각으로 다시 숙고해 봄으로써,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여성관을 확립하여 바람직한 간호사의 위상정립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여성이 종교적인 이미지를 장악하고 존중받았던 선사시대, 한때 공동체 건강관리의 주역으로 시작되었던 여성과 간호의 역사는 가부장제가 지배권을 획득하는 고대문명시대부터 가부장적 모성으로서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여성의 특권이었던 질병관리가 점차 남성 지배적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 탄생이후 중세로 접어들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더불어 아픈 자에 대한 간호봉사는 종교적 사명으로 여겨져 박애사상과 평등사상이 간호의 본질을 이루면서 간호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근대가 시작되는 르네상스시대에는 자율적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여성들을 배제하는 고대 아테네의 성적 범주화가 다시 부활되었다. 또한 종교개혁은 기독교 신앙으로 향상되었던 여성의 지위를 오직 순종적이고 조용한 배우자의 완벽한 아내로 고착시켜 버렸다.

그리고, '과학적인 권위'라는 토대 아래 그 동안 여성들에 의해 주도된 건강의 주역으로서의 일체의 활동을 미신적이며 마녀적인 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여성치료자들은 마녀사냥의 주된 표적으로, 이른바 근대 의료형성사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한 역사가 자행되었다.

계몽사상의 가치체계와 산업혁명의 기술로 초기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주류를 이루던 근대 중기에는 경제적 변화에 따라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에 의해 여성에 대한 견해가 재정의 되었다. 직업의 공적인 세계와 가정의 사적인 세계로의 현저한 분리로 여성의 경제, 사회적인 지위가 하락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산업화가 초래한 도시의 빈곤은 가난한 여성들을 노동조건이 열악한 공장의 임노동자로 직업전선에 진출하게 만들었다.

한편 면허제를 도입한 의사들은 비공식적인 의료인들을 더욱 조직적으로 배제하는데, 여기서 여성은 공식적인 의료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박탈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료는 세속화되어 그동안 종교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의료기관도 국가나 혹은 세력있는 상인들에게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수도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아픈 자의 총체적인 접근이던 간호는 붕괴되고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산업전선에 뛰어든 준비가 안된 낮은 사회계층의 여성들에 의한 간호로 대체되면서 간호는 200년동안의 암흑기를 맞게 된다.

산업화가 만들어낸 거대한 부와 민중들의 처참한 생활상이 대비를 이루던 근대 후기로 접어들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양성의 평등을 쟁취하려는 선구자적인 페미니스트들에 의한 여성운동이 부상하게 된다. 이 시대 페미

니스트들은 여성의 도덕적·경제적 독립을 위해 가사영역에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업과 비종교적인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페미니스트인 나이팅게일은 남성들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에서 타인의 건강한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여성들인 간호사라고 주장하면서 전문적인 간호교육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많은 여성을 대학가로 움직이게 하여 보통여성들의 경제적 참여와 여성의 전문적 직업관을 고취시켰다. 나이팅게일은 간호개혁에 일생을 투신하므로써 그 시대 페미니스트들이 추구했던 이상을 실현하여, 현대 간호로의 변환기의 장을 마련했던 것이다.

이렇듯, 역사에서 여성의 지위를 살펴보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성은 존경받기도 하고 때로는 지위가 하락되기도 하여 왔다. 역사가 일깨워 주듯이, 여성의 이미지와 지위는 사회적으로 구축한 방식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사회가 여성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여성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부여된 중요성도 달라져 왔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인류의 생존과 함께 인류의 생명을 보살피는 일로 시작되고 예로부터 가사 및 육아와 함께 여성의 고유한 업무였던 간호는, 인류의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결코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여성 치유자들이나 간호사들은 한때는 건강관리의 주역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 전문직 간호사로 뿐 아니라 한 여성 직업인으로서, 여성에 대한 정체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여성의 지위향상이 간호의 위상 향상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고 여성을 위한 목소리에 한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침묵은 여성의 지위향상에 즉, 우리 간호의 위상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료인류학자 슐만은 가장 이상적인 간호사의 역할을 기술하기 위해 〈모친의 대리인 mother surrogate〉라는 명문구를 만들었다(조지 M. 포스터와 바바라 G. 앤더슨, 1994). 역사적으로 볼 때 역시 간호는 여성적이고 애정, 친밀, 물리적 접촉 등 보호적인 모성적인 돌봄에 근거하여 간호가 발전하였으며, 이 모성적인 돌봄은 자기의 가족과 공동체의 일원 뿐 아니라 나아가 전 인류를 껴안는 성모마리아의 모성상에서 기장 절정을 이루었다. 또한 절정기의 간호인은 권력의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대상자로부터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존경의 대상이었다. 한때 강력한 父性에 밀려 나락의 늪으로 떨어져 있던 모성 즉 여성의 지위가 다시 부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성의 가장 고유한 업무인 '모성상'에서 간호의 위상정립의 그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차후「여성의 지위에 따른 간호사의 위상 변화 Ⅲ - 20세기 이후로부터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 나이팅게일의 출현으로 암흑기의 막을 내렸던 근대 후기의 간호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자본주의가 팽배해진 현대에 이르러 어떻게 간호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변혁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 21세기의 문 앞에서 선 현 시대의 간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여성의 지위 및 여성운동과 함께 고찰함으로서, 오늘의 간호위상의 바른 인식과 더 나아가 미래가 요구하는 간호위상 정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을 맺음하기에 앞서, 본 논문은 여성의 지위변천사에 대한 연구자의 간호사로서의 제한된 시각과 지식부족으로 선문적인 여성학이론 접목에 대한 고찰이 미비한 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학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여 차후 看護史의 여성학적 고찰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게어로그 지그문트 (1988). 현대여성의 지위. 박영도역. 서울: 도서출판 지평.

김남선 (1997). 포스트구조주의적 분석을 이용한 간호와 보건의료의 역사에 대한 재해석의 한 시도. 간호학회지, 27(3), 531-540.

남인숙 (1996). 왜 여성학인가. 서울: 학문사.

린다 M. 글레논 (1990). 서성의 이원론. 이수자역.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르네이 C. 팍스 (1993). 의료의 사회학. 조혜인역. 서울: 나남.

문화사교재편집회 (1977). 세계문화사. 서울: 합동교재공사.

박성수, 김영하 (1984). 세계사. 서울: 금성출판사.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1992). 성·여성·여성학. 부산대학교 출판부.

섀리 엘 서러 (1996). 어머니의 신화. 박미경역, 서울: 까치글방.

세계역사연구회 (1995). 세계사(상). 서울: 오상출판사.

앨빈 토플러 (1986). 제3의 물결. 이규행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영국개방대학 '건강과 질병' 교재편찬위원회 (1991). 역사속의 보건의료. 황상이역. 서울: 한울 아카데미.

윌니임 H. 맥닐 (1992).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허성역. 서울: 도서출판 한울.
윤근섭 등 (1995). 여성과 사회. 서울: 문음사.
이영복 (1995). 간호사. 서울: 수문사.
이정지 (1988). 의료공동체 안에서 애덕의 증인들 -간호영성1-. 지산간호보건전문대학 논문집, 6, 81-146.
이종찬 (1992). 서양의학의 두얼굴. 서울: 한울.
이화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80). 여성학-여성연구의 인류학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일월서각 편집부 (1985). 생각하는 여성. 서울: 일월서각.
임미림 (1995).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간호 이미지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간호과학, 7, 64-83.
제임스 레드필드 (1995). 천상 예언. 김옥수역. 서울: 한림원.
조르주 뒤비 · 미셸 페로 (1994). 여성의 역사 4(상). 권기돈, 정나원역. 서울: 새물결.
조성오 (1994). 우리역사이야기(1). 서울: 도서출판 돌베개.
조세핀 도너번 (1993). 페미니즘 이론. 김익두 · 이월영역. 서울: 문예출판사.
조지 M. 포스터, 바바라 G. 앤더슨 (1994). 의료인류학. 구본인역. 서울: 한울.
질라 R. 아이젠시타인 (1988). 여성해방론의 급진적 미래. 김경애역.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F. 카프라 (1993).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이성범, 구윤서역. 서울: 범양사출판부.
프로랜스 나이팅게일 (1997). 나이팅게일의 간호론. 심조자, 이명옥역. 서울: 현문사.
한국여성연구소 (1989). 여성사회철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한혜라, 박영숙 (1994). 의사와의 관계에 대한 간호사의 경험분석. 서울대학교간호대학 간호학논문 집, 8(1), 83-92.
Bernard, J. (1972). The future of marriage, New Yock: Bantam Books.
Brooks, A., Kracbt, K. (1983). Evolution of Definition of Nursing. AJN, 1983, July.
Devault, M. L. (1990). Talking & Listening from Womens Standpoint : Feminist Stategies for Interviewing & Anlysis. Social Ploblems, 37(1), 96-116.
임은옥 (1998). 여성건강 연구의 변화를 위한 제안 : 여성의 일. 대한간호, 37(1), 31-50.
Eli Zaretsky (1976). Capitalism, the Family & Personal Life. New Yock: Harper.
Louise C. Selanders (1998). Florence Nightingale : The Evolution and Social Impect of Feminist Values in Nursing. Journal of Holistic Nursing, 16(2), 227-246.
Miles, M. (1985). Image & Insight : Visual Understanding in Western Christianity & Secular Cuture. Boston: Beacon.
Witz, A. (1986). Patriarchy & the Labour Market : Occupational Control Strategies & the Medical Division of Lobour. Knights, David & Hugh Willmott(eds.). Gender & the Lobour Precess (1986). London: Cambridge Univ. Press.

-Abstract-

Key concept : the Status of Women, the Status of Nurse, Modern Epoche

The Change of Nurse's Status According to the Status of Women II

-From the post medieval epoche to late modern epoche-

*Choi, Soon Ock**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precisely the historical phases of nursing. We nurses should try to acquire the central social position in the health management system in the near the future, the 21st Century.

Therefore my treatise aims to orient the desirable phases of the history of nursing through the feministic survey of the history of nursing from the post medieval epoche to the modern epoche.

During the time of the renaissance which gave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Pusan Catholic College

morning light to the modern epoche, the antique Athenian thinking of sex was again revived. Athenian excluded the women from the public and autonomous regions. All the medical activity, once dominated by the women, was misfortunately regarded as superstition acted by witches. Accordingly, the nursing women were to hunted as witches. In short, in the early modern epoche, women began to be excluded from the history of medical activities.

In the middle modern epoche characterized by the enlightenment movement and early capital economic system, capitalistic patriarchal system began to be formed by change in the economic system. The status of women began to be greatly dropped below by the social distinction of the private dimension of home and the public dimension of job.

The woman was deprived of even the occasion to get the official license of medicine and medical institutions were handed to the state or the powerful and rich merchants. Accordingly, nursing acted mainly in the nunnery as the total approach to the patients was destructed wholly and transformed into the means of earning the money. Therefore unprepared low class-women began to engage in nursing only for the money. From then on, nursing activity was tunneled through the dark age for 200 years.

In the late modern epoche characterized by the contrast of the accumulated vast capital by industrialization and vast poverty of the peoples, feminism began to float over the surface for the acquisition of equality of men and women from England.

A feminist, Nightingale insisted that the women as nurse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healthy life of man. She tried the professional nursing education for women. Accordingly she not only contributed to the intellectual progress of women but also inspired in women the consciousness of the professional job. She tried to realize the ideal of at-that-time-feminists by engaging in nursing all through life. She really paved the road to contemporary nursing.

In the near the future, I will write 〈The Change of Nurse's status Ⅲ〉 to describe how the late modern epoche nursing has fallen into the dilemma through the 1st and 2nd world wars and matured capitalism and to consider contemporary nursing with the status of women.

All these papers aim to give proper recognition of nursing and right orientation of the future 21st Century nursing.